

# “태양광” vs “융복합 휴양밸리” 장흥 관산 ‘삼산간척지’ 대립

### 2027년까지 전국 최대 스마트팜 조성... 일부 주민 태양광 시설 요구에 사업 장기화 우려

장흥군이 관산을 삼산리·신동리 간척지(삼산간척지)에 오는 2027년 준공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 농어촌 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요구하고 있어 사업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은 삼산간척지에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 '장흥군 농어촌 융복합 휴양밸리'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축구장(7140㎡) 342개 면적인 244ha 규모로, 지난해 고흥만 간척지에 준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33.4ha)보다 7배 넘는 수준이다.

이곳은 상습적인 염해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간척지로, 장흥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하나로 융복합 휴양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민간자본을 사업비의 50%까지 유치해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91ha)와 전락작물 스마트팜 등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153ha)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는 에너지기업 5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유리 온실을 갖춘 블루에너지 팜을 조성하기로 했다.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웰니스 체어맨드'와 숙박 시설(콘도미니엄), 스포츠 센터, 농업업 전시관, 특산물 판매시설 등 휴양단지도 함께 들어선다.

장흥군이 휴양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삼산간척지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420ha를 매워 간척지와 담수호, 방조제 등이 건설된 농작지이다.

하지만 소금기 때문에 염해가 발생하고, 배수시설이 미흡한 탓에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십수 년간 되풀이했다.

삼산간척지에는 22개 영농법인이 202ha 농경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빌려 사료 작물과 벼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2021년 간척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바뀌면서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삼산간척지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태양광 사업자들은 (주)장흥삼산에너지 컨소시엄을 만들어 관산을 삼산리·신동리 간척지에 240M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사업 제안에는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영농법인들에 ha당 1000만원씩 해마다 총 20억원(200ha)을 '연급'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산읍에는 발전기금 30억원을 주고, 사업 부지 반경 1km 이내 15개 마을에는 총 1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28일 장흥군이 주최한 '융복합 휴양밸리 조성사업 경작법인 설명회'가 열린 관산읍 사무소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다.

간척지 경작법인과 주민들은 '햇빛연금 받고 싶다' '휴양밸리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휴양밸리 조성을 반대했다.

장흥군은 오는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휴양밸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간척농지 관리처분 계획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 계약을 할 방침이다.

김근 장흥군 농산과장은 "융복합 휴양밸리가 조성되면 해당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던 영농법인들에게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며 "쌀 생산이 어려운 농작지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6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유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은 관산을 삼산간척지에 오는 2027년까지 축구장(7140㎡) 342개 규모 '농어촌 융복합 휴양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삼산간척지 전경. (장흥군 제공)

# 장성군 농특산물, 서울 '봉은사' 간다

### 외국인도 즐겨찾는 '도심 속 천년고찰'과 상생 협약 농특산물 구매·홍보 협력...수도권 판로 확대 기대

장성군이 지역 농산물 판로를 서울 강남 권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장성군은 지난 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와 '도농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봉은사 원명 주지스님, 백양사 무공 주지스님, 장성먹거리통합센터장을 비롯해 농협과 한국쌀전업농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봉은사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천년고찰'이다.

서기 794년 신라 연희국사가 창건한 견성사로 시작해 조선 성종의 능을 지키는 능침 사찰 지정 이후 '은혜를 받는다'는 뜻의 '봉은사'로 개명했다.

30만 신도가 수행하는 도량인 서울,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장성군과 봉은사와의 인연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장성군은 이틀간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열어 일부 품목이 조기 매진되는 등 도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봉은사는 장성 농특산물 구매·홍보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장성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특산물을 착한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봉은사와의 협약을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왼쪽) 장성군수가 지난 7일 봉은사 원명 주지스님에게 지역 특산물 북송이를 전달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봉은사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本山인 서울 조계사에 장성 브랜드 '365생 프리미엄 쌀'을 공양미로 공급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봉은사와 장성군이 '자신과 타인이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도농상생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5개 정수장 먹는 물 '적합' 판정

화순군이 올해 상반기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의 먹는 물이 모든 수질 기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화순군은 하루 6항목, 주간 7항목, 월간 60항목, 분기별 118항목 등 법정 수질검사를 받아왔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 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 93곳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이들 시설도 이번에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검사 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과 화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은 가정용 수도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우리 집 수도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도물에 대한 공공증을 해소하고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061-379-3865)에 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이 공급되도록 정수장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강진 쌀귀리 생산량 30% 감소 예상

이달말까지 수매...가격은 올라

강진 쌀귀리 생산량이 잦은 호우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보리 및 쌀귀리 수매를 시작,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강진지역 쌀보리 재배면적은 350ha, 맥주보리 110ha, 쌀귀리 1000ha로 총 1460ha이다.

생산량은 쌀보리 914t, 맥주보리 329t, 쌀귀리 2630t으로 지난 5월 잦은 호우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보리와 쌀귀리는 지역농협, (주)두보식품, 우정정미소 등을 통해 매입 중이다.

농협 수매가격은 40kg 기준 쌀보리 1.2등급 3만 6000원, 등외 3만3000원이며 쌀귀리 특등 8만 2000원, 1등급 8만원, 2등급 7만원이다.

지난해보다 쌀보리는 4000원, 쌀귀리는 1만원 올랐다.

강진군은 쌀귀리 전국 최대 주산지로, 군은 올해부터 쌀귀리를 재해보험 품목에 반영시켜 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 피해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보리와 쌀귀리는 대량 수요처가 없어, 계약재배를 하지 않을 경우, 가격 하락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앞으로 반드시 계약 재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나주목향청' 50년 만에 복원

### 일제 강점기 건물 1973년 철거...윤병태 시장 "나주목관아 복원 역사문화관광 1번지 도약"

조선시대 지방 읍치시설 중 하나인 나주목사 자문·보좌했던 '나주목향청'이 50년 만에 복원됐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 향청길 30에서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만 시의회의장, 문화재 위원,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목향청 복원 낙성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향청 복원에는 국비 8억9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2억7000만원이 투입돼 건축면적 92.71㎡에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 전통 한옥 형태로 복원됐다.

복원된 향청(鄕廳)은 조선시대 지방 수령을 자문·보좌하던 자치 기구로 국가사적 483호인 나주목관아 핵심 시설로 꼽힌다.

향청은 조선 초기 성리학자 향촌 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됐던 유향소(鄕所)가 조선 후기 향청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돼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향청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나주재무서를 시작으로 라신면사무소, 나주수리조합, 나주농지개발조합 청사로 활용되다가 1973년 조합 청사 신축에 따라 철거되면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향청 복원은 2012년 콘크리트 지장물 철거로 시작했다.

이후 2017년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향청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및 학술연구 자료 확보 작업이 이뤄



졌다.

조사 결과 향청 분청 건물은 1973년 나주농지개발조합 청사 신축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돼 67의 적실 유구만 확인됐다.

나주시는 향청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화재청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민선 8기 출범 후 2022년 9월 향청 복원 착공식을 가졌다.

향청 편액 글씨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씨가 썼으며, 문간재 유구, 우물과 담장도 정비됐으며 향청

주변 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향청은 나주목사가 백성을 잘 살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보좌했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아 시설이었다"며 "향청을 시작으로 나주읍성과 나주목관아, 나주향교 복원과 금성관 연못지천 정원, 나주전 생태물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참가자들이 수상레저 체험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 장애인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호응

담양군이 장애인 건강과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용면 일원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담양군과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 복권기금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장애인 복지 및 폭넓은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6일 행사에는 지역 시설 장애인과 인솔자, 관리자 등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상레저

체험을 진행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수상레저 체험을 했다.

이번 강좌의 한 참가자는 "태어나 처음 수상레저를 체험하는 즐거운 하루였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군 관계자는 "평소 체육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이번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